

01 교회소식

2013 여름성경학교

지난 7월 28일부터 4일간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열려 만민의 꿈나무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해주었다.

02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바라볼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영육간에 축복을 받고 가장 영광스런 천국 새 예루살렘을 보장받으며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사랑'이 최고의 아이를 만든다

주 안에서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04 간증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척추 통증과 고혈압을 치료받은 케냐 메리 완고이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593호 2013년 8월 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 천국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마음 이룰게요"

2013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사랑해요! 주님~" 은 영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배운 '개강예배', 영적인 사랑의 의미를 되새긴 '말씀과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랠트로 마음껏 영광 돌린 '예술제'와 온 마음을 다한 찬양 '파워 지저스', 천국을 간절히 소망케 한 '천국과 지옥' 말씀, 그 외에 공과 시간과 다양한 학년별 프로그램으로 '2013 여름성경학교'가 알차게 진행됐다. 이를 통해 만민의 어린이들은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주일학교(교장 장성식 목사)에서 천국 잔치가 열렸다.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은 영'을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가 열려 전국 16개 지교회에서 동참했다.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개강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어로 통역이 됐다.

첫째 날에는 신동초 목사를 강사로 개강예배가 있었다. 신 목사는 '은 영'(히 10:22)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과 사랑, 용서와 믿음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채워야 한다."고 전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교사와 예능부 어린이들의 총명한 준비찬양 후 이수진 목사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이 목사는 '영의 마음'(고전 13:13)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토대로 주님의 마음을 닦아야 할 것을 전했다. 어린이들은 이어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되새겼다.

셋째 날 오전에는 길은찬, 유민우 어린

이의 사회로 제6회 만민아동예술제가 있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독창, 중창, 고전무용, 현대무용, 워십, 연주, 영어말하기, 단막극 등 다양한 장기를 선보였다.

대상은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태권무를 보여준 대전만민교회 스페이스팀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 금상은 목자의 기쁨팀(마산만민성결교회), 은상은 트윙클 율동팀(대전만민교회), 동상은 새렘금관양상블(본교회), 인기상은 목자의 열매팀(본교회)이 수상했다.

오후에는 이희선 목사의 인도로 '파워 지저스'(Power Jesus)가 진행됐다. 이 목사는 "빛의 마음을 이루고 행할 때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전한 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찬양 인도로 어린이들은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천국의 소망을 담아 율동과 함께 맑고 고운 찬양

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넷째 날 오전에는 김수정 목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으며, 상대를 아프게 하는 악한 마음은 버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선한 마음을 이뤄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성령충만기도회, 인형극, 구연동화, 성경퀴즈대회, 요리대회, 새 예루살

렘 내 집 꾸미기, 간증나누기, 천로역정, 골든벨 등 다양한 학년별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진행됐다. 점심식사 후에는 각 반 주교사의 인도로 공과 시간이 있었다.

매년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보살피는 지도교사와 부장, 주교사와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린다.

포토뉴스 교회 개척 31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

지난 7월 28일 주일 저녁예배 시 '믿음으로 걸어온 길'(히 11:1)이라는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의 설교 후 한주경 찬양선교사, 천상의무용팀, 천상의소리선교단,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탈싱어즈, 파워워십팀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어 닷시오케스트라와 살롱성가대의 특송 후 온 성도가 개척 31주년을 맞이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바라볼 것

“위엿 것을 생각하고
망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2)

주신 복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본다 뜻이 아닙니다. 공의에 맞게 자기 할 바를 성실히 행하되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평안을 누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궁구하며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마음과 취향에 맞추려고 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궁구하지요.

마음이 불편하고 혈기가 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을 생각하면 이내 선한 생각으로 바꿉니다. 나아가 마음에서 혈기라는 속성 자체를 뽑아 버리지요

간음, 시기, 질투, 욕심 등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은 하지 않고 어찌하든 버리려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 희생하며 섬기지요. 이렇게 노력하니 신속하게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와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요삼 2절).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으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지요.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수록 육의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2.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장 영광스런 천국 새 예루살렘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단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처소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런 새 예루살렘입니다(계 21~22장). 창세 이래로 구원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중에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어둠이 너무나 짙은 이 마지막 때,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구원조차 위태롭지요. 세상 문화 속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범람하며 보고 듣는 것마다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에서 양 때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

떼들을 어찌하든 새 예루살렘에 들이기 위해 좁은 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라, 비진리가 심겨지는 TV나 영화 같은 것은 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성 간에 정욕으로 대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등 외치고 또 외치지요.

물론 성도들 중에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달려온다 했지만 목표가 멀게만 느껴지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낙심이 되는 시간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결코 아득하고 먼 곳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노력이 중요하지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영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 빠른 속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썩어질 육의 것들을 신속히 버림으로 진리로, 빛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어 새 예루살렘을 보장받습니다.

3.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는 병약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요. 이렇게 멸시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태는 자기 민족에게서 멸시와 미움을 받는 세리였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존귀한 열두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베드로 역시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권능을 행하는 사도가 됐지요.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남들보다 열등한 존재처럼 보였을 때도 있었겠지요. 물질이나 외모, 지식이나 배경 등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삶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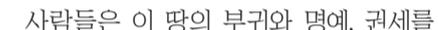
살았다 해도 주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 곁에는 24시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수호천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어떤 어둠도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주목해 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부모의 눈을 맞추며 웃을 때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처음으로 “아빠! 엄마!” 하고 말문이 트이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천 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우리가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오기를 애타게 바라고 계시지요. 이 사랑을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며 범죄하는 것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반면에 진리를 행하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을 조금만 기쁘시게 해드려도 어찌하든 더 큰 사랑을 표현해 주기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올려드리는 마음의 향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마디 사랑의 고백도 영을 사모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고이 간직하셨다가 천국에서 갚아 주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어 취하는 모든 육의 것들이 결국 다 이렇게 헛되고 썩어질 것입니다(전 1:2~3). 그러니 땅엿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엿 것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부귀와 명예, 권세를 추구하며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요,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하신 대로 하나님만 바라 때 큰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1.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영육간에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와 명예가 있어도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복은 언제든지 무너지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 교회 주소**
7호선 남구로역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 리 은 행 :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사랑'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이의 상황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대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아이들은 종종 속마음을 전혀 엉뚱한 말로 표현한다.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내뱉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때는 아이가 한 말보다 기분을 먼저 살피주고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만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해?", "당장 그만 뒤.", "어디서 놀다 왔지?" 하는 식의 단정 짓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마음 문을 닫게 한다.
 또한 아이가 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아이는 상대에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해 그 관계가 멀어진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존중하며 대화할 때 서로를 이해하기 쉽고 유대관계가 돈독해진다.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눈 뒤 교사들에게 A반은 매우 지능이 높고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알려 주었다. 반면 B반은 열등한 학생들이라고 알려 주었다. 사실 두 반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두 반을 테스트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학과 성적은 물론 인성적인 면에서도 A반이 월등히 우수하게 나타난 것이다. 분명히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A반에 들어갈 때 선생님들은 '이들은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장점과 좋은 자질부터 보였다. 그래서 칭찬을 자주 하게 되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며 정성껏 가르쳤다. 아이들은 이런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듯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을 내었고 자신감도 늘었다.

반면 **B반을 대할 때에는** 학생들이 열등하다 생각하니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결점이 자주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학생들의 작은 잘못에도 쉽게 책망했다.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역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무시하는 말도 함부로 했다. 그러자 B반 아이들은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리는 뭐든지 못하나 보다.'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됐다. 그 결과 두 반은 학업 성취와 인성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
 소망 중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나 교사의 모습에는 말 한마디나 무의식적인 표정 하나에도 기대와 사랑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나 교사는 어린이를 주 안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어야 한다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이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의 눈앞에서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된다. 기도는 잘 하는지, 예배는 잘 드리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야 한다.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하나님과 주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사랑의 힘으로 섬겨주어 그 중심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 근본의 악을 빼내어 버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나 교사가 더욱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야 한다.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감정을 수용하되 부정적 감정, 비진리의 감정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나쁜 감정, 좋은 감정에 편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있으면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비진리의 감정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무조건 "그런 행동을 하면 지옥에 간다!" 하는 말로 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느끼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가르쳐주어야 한다. 곧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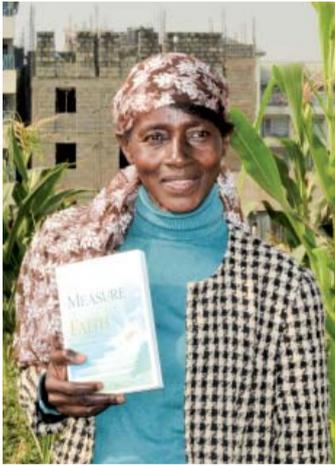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8.4~8.10
 August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일곱교회 2-6
 - 2차 영혼육 교육 11-15
 - 십계명 8-10
 - 선 1-2
 - 창세기 강해 49-53
 - 요한일서 강해 36-39, 1
 - 사랑
- GCN TV 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1-5 (이수진 목사)
 - 비교하는 마음 (이미영 목사)
 - 능력 2 (이화선 목사)
 - 영으로 변화 2 (김수정 목사)
 - 성결의 척도 (김송신 전도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7 (정구영 목사)
- 2013 만민하게수련회 LIVE**
 - 2013 만민하게수련회 교육 '운영'
 - 2013 만민하게수련회 '체육대회'
 - 2013 만민하게수련회 '캠프파이어'
-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7-12
 - 찬양과 경배 (3) 22-24, 29, 73
 - GCN 금요찬양 스페셜 25
- 해외성회 시리즈**
 - 에스토니아연합성회 1
 - 페루연합대성회 종합편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말씀과 기도로 척추 통증과 고혈압을 치료받았어요”



메리 완고이 성도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골다공증과 디스크로 인해서 척추에 문제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저는 신경에 손상을 입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더욱이 등은 굽고 고혈압까지 있어서 몸은 매우 쇠약해져 6년간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지요.

2012년 5월 초, 이웃에 사는 여인이 저를 찾아와 ‘성결’과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몹시 기뻛고 자세히 알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분량』 책을 빌려 읽어보니 ‘믿음은 보배 중의 보배며,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열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새우며 이튿날 오후 3시까지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영감 있는 내용이었으며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지요. 또한 저자인 이재록 목사님께서 진정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제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자 사람들에게 물어 이재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만민중앙교회에서 세운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 저녁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담임 정명호 목사님이 은사집회를 인도하고 계시

지요. 저는 정 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그것은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이었지요(행 19:11~12).

이렇게 기도받은 뒤 저는 고혈압이 치료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병원 검진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도 『십자가의 도』와 『천국』 등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들을 읽는 동안 더욱 몸에 힘이 주어지고 강건해졌습니다.

지금은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고 밭일을 할 정도로 강건하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이재록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Manmin Central Church's 29th Anniversary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괴성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창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창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